



된장에서 배우는 다섯 가지智慧

어느 날 책을 보다
"된장의 오덕(五德)"이란
글을 읽게 되었다.

십수 년간
먹어온 된장이지만
정작 된장의
의미를 알지 못하였다.

된장이 지닌 다섯 가지 德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알려주는
자연의 뜻은 아닐지
생각해본다.



1. 단심(丹心)

된장은 다른 음식과 섞여도
결코 자기 맛을
잃지 않는다고 한다.

단심은 바로 다른 것과
섞여도 제 맛을
잃지 않는 德을 말한다.
이것이 된장의
첫 번째 좋은 점이다.



2. 항심(恒心)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것이다.
된장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다.
오히려 더욱 깊은
맛을 낸다.

항심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德을 말합니다.



3. 무심(無心)

된장은
각종 병을 유발하는
기름기를 없애준다.

줄지 않은
기름기를 없애주는 德을
된장의 무심이라 한다.



4. 선심(善心)

된장은
매운맛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맵고 독한 맛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된장의 德을
선심이라 한다.



5. 화심(和心)

된장은 어떤 음식과도

조화를 이룰 줄 압니다.

어떤 것과 어울려도
조화를 이루어낼 줄 아는
德을 화심이라 합니다.



우리 벗님들~!
健康조심하시고
親舊들 만나
茶 한잔 (소주 한잔) 나누시는
餘裕롭고 幸福한
나날 되세요~^

